

[1956-11-05, 에버렛 스완슨이 기도 동역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 1956년 가을 기도 편지

일리노이주 시카고

사랑하는 기도 친구 여러분,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예레미야 8:18-22)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읽고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십시오. 우리 주변이 모두 물질을 숭배하고, 바다 건너편에서는 수억 명이 우상과 주물과 나쁜 영을 숭배하는 이때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편지를 드린 이후 몇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섬길 수 있었던 특권에 대해 다시 한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미네소타주 클리어브룩(Clearbrook)에서 우리는 천막이 꼭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히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미네소타주 베커(Becker)에서 말씀의 열매가 한창일 때는 옷걸이를 바깥으로 옮겨야 했고, 지하실에서 추가 의자를 갖고 올라와야 했습니다. 아이다호주 쿠나(Kuna)에서도 의자가 추가로 필요했고, 예배당 뒤편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워싱턴주 밴쿠버(Vancouver)에서는 목사님의 사랑하는 아내가 제가 도착하기 하루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와 그의 가족들은 너무나 강인한 모습과 진정한 기독교 신앙과 평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영혼을 축복했습니다. 워싱턴주 선라이즈(Sunrise)에서는 교회 옆 들판의 큰 천막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굉음을 내는 난로 두 대로 간신히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출석률이 매우 높아 교회의 적정 수용 인원을 거듭해서 넘어서는 등 놀라운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미네소타주 레이크 사라(Lake Sarah)에서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로 진정한 각성이 일어나고 회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Alexandria)에서는 매일 밤 강당이 가득 차서 옆방까지 열어야 했으며, 주일 밤 예배는 고등학교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일련의 예배 대부분에서 목사님과 성도들은 이번 예배가 지난 수년간 그들이 경험한 예배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전도 예배이며, 열매가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의 구원을 위해 50년 넘게 기도를 받아온 60세가 넘는 한 남성과 그 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도께 나아왔을 때, 강당에 있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비처럼 흘렸습니다. 술꾼들이 개종했고, 흡연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으며, 이들은 나중에 "담배 냄새가 역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도덕함을 고백했고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간증 거리가 얼마든지 더 있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문 앞에서 목사에게 "오늘 밤은 안 되겠습니다. 혹시 내일은 모르겠지만요."라고 말했던 한 남자는 그날 밤 강당 안에서 사람들의 변화를 목격하고, "저는 내일까지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 그는 새로 발견한 기쁨과 평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타락했던 사촌이 그와 함께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저는 며칠 전, 약 1년 전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 주신 곳에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남아 있고, 그중 일부는 주님 안에서 놀랍게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로부터 이따금 이런 보고를 편지로 또는 만나서 직접 들을 때면 제 영혼에 정말 큰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이것은 저와 제 아내가 해가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외로움을 견뎌 낼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진짜로,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의 사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도사들은 9개월 동안 384명의 개종자를 보고했습니다(최신 보고). 할렐루야! 매달 수천 부의 복음 문서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고아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 글을 쓴 이후로 우리는 3개의 보육원을 더 지원하게 되어 현재 총 7개가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1리틀 램스 보육원(Little Lam's Orphanage)은 아주 오래된 군대 천막에 자리 잡고 있으며, 단순히 생존만을 위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보육원은 한 기독교 경찰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그곳에 있었고, 그들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저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소년, 소녀들이 거지이며 구두닦이입니다. 우리는 50명의 후원자를 얻었지만, 이 보육원의 600명이 넘는 어린이들에게 후원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홀리네스 앤 그레이스 보육원(Holiness and Grace Orphanage)에는 117명의 어린이가 있으며, 대부분 난민이며 전쟁 희생자들입니다. 보육원은 작년에 제가 가장 큰 지역 부흥 집회를 가졌던 안동 근처에 있습니다. 그들은 절박한 도움이 필요했고, 2년에 걸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보육원들

---

<sup>1</sup> 리틀 램스 보육원(Little Lam's Orphanage): 참고 링크\_1961.0000. 김윤자(KIM YUN JA)어린이 편지\_LITTLE LAMB'S ORPHANAGE

중 많은 곳이 근처에 주둔한 미군 부대의 지원을 받았지만, 부대들은 떠나고 더 이상 지원이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60명의 후원자를 얻었습니다.

38선 북쪽에 있는 텐더 너처 보육원(Tender Nurture Orphanage)에는 모두 44명의 어린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후원하기로 약속했고, 믿음으로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봉된 사진은 무너진 건물 안에 있는 현재의 보육원 부지, 어린이들과 몇몇 봉사자들,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신규 부지가 기존 건물과 매우 가까운 곳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방 14개로 이루어진 2층짜리 집과 훌륭한 대형 사과 과수원(실제 자산)을 현재 750,000환(약 9,100달러)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꽤 괜찮은 구매이고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행동하며 협상을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을 도와 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100달러의 금액으로 또 어떤 분들은 50달러 또는 20달러로, 아니면 그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도 도울 수 있습니다. 수표에 "14층 집"으로 지정하여 보내 주시면, 이 일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아직 시골 지역에 있는 뉴 보이즈 보육원(New Boys Home)에 관해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찾지 못했고 자금도 부족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에는 도움이 절실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고 그리스도를 위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다가가 구원하고 있지만, 그 필요는 여전히 거의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800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선교사 친구 피터 반리에롭(Peter Van Lierop) 박사는 저의 보육원 3곳을 감독하고 있는데, 최근 편지에서 "서울, 대구, 부산 등 여러 도시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어린이들이 수천 명에 이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 겨울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립니다. 그들에게는 집이라고 할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월 5달러 이상을 보내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새로운 후원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간단하고 쉬운,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후원 시스템을 안다면, 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친구, 친척, 주일학교 학급, 여성 전도회, 청년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분들께 제게 편지를 쓰시도록 안내해 주십시오. 신규 후원자를 위한 특별한 봉투를 동봉합니다. 이 소중한 어린이들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옵니다. 놀랍도록 축복받은 땅,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 봅시다.

일리노이주 리버데일(Riverdale), 델라웨어주 윌밍턴(Wilmington), 콜로라도주 덴버(Denver), 아이오와주 톰슨(Thompson) 및 다른 지역에서의 집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월 한 달 동안 멕시코에서 예배를 드릴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충분한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 짐이 나날이 무거워집니다. 계속해서 몸이 좋지 않은 제 아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하게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은 곧 오십니다.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 주 안에서 인사드리며,

에버렛 F. 스완슨 올림

추신.

한국의 베테랑 선교사이며, 사도이며 현대 예술가라고 할 수 있는 저의 친구, <sup>2</sup>아치 캠벨(Arch Cambell) 박사가 <sup>3</sup>『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The Christ of the Korean Heart)』라는 새 책을 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핍박과 순교 등 한국 기독교인들의 17가지의 진실되고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2달러 후불이며, 스터디 그룹에도 아주 좋을 것입니다. 5권 이상 주문하시면 20% 할인됩니다. 여기에서 주문하십시오.

---

<sup>2</sup>아치 캠벨(Arch Cambell, 한국명: 감부열, 1890~1977): 미국 북장로교 소속으로 1916~1960년 한국에서 선교사로 섬겼음. 한국 전쟁 당시 군목 제도를 처음으로 창설했으며, 화가로 유명하기도 했다. 다음 문서 참조: 한국기독교사 게시판 (<http://www.1907revival.com/bbs/view.html?idxno=2943>), 구글(<https://www.findagrave.com/memorial/207283944/archibald-campbell>), 국민일보(<http://www.kukmindaily.co.kr/article/view.asp?arcid=0012598900>).

<sup>3</sup>『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The Christ of the Korean Heart)』: 2018년 한국의 아바서원에서 <한국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출판했음(저자: 아치볼드 캠벨(Archibald Campbell, 한국명: 감부열, 1890~1977): 미국 북장로교 소속 한국 선교사로서 1916-1960년 동안 황해도 및 대구에서 사역했다. 대구 계명대 초대 총장 역임. 다음 문서 참조: 한국기독교사 게시판(<http://www.1907revival.com/bbs/view.html?idxno=2943>), 구글(<https://www.findagrave.com/memorial/207283944/archibald-campbell>), 국민일보(<http://www.kukmindaily.co.kr/article/view.asp?arcid=0012598900>), 조선일보([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4/2018082400164.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4/2018082400164.html)).